

고층아파트 진입 형식에 따른 이웃관계 형성에 관한 연구

- 계단실형과 편복도형의 비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Formative of Neighborhood Relationship in the High-rised Apartment

- Centering of comparative analysis on Staircase Type & Gallery Type -

김윤학* 장 훈** 이경순*** 김현수*** 조용준***

Kim, Yun-Hag Jang, Hoon Lee, Kyung-Soon Kim, Hyun-soo Cho, Yong-Jo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and compare the range of dwellers and the use of pattern in public common space for dwellers of high-rised apartment of staircase type and gallery type.

Also, it is to ascertain the relationship between extent of neighborhood and community awarenes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 term of habitation of most apartment dwellers surveyed were relatively short and most of dwellers had a small family that having a minor children. Relational association with their neighbor in apartment of staircase type was happened between families that use the same entrance and elevator and it in galler type was happened inside the family. But intimacy rate and range of interest were not that high additively, int the case needs a conversation with neighbor, it happened in individual entrance and elevator hall rather than inside the house and exterior area.

키워드 : 고층아파트단지, 공용공간

Keyword : High-rised Apartment, Common Space

I.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960년대 접어들면서부터 급격하게 진행된 우리나라의 산업화는 도시를 급격히 팽창시키고 인구의 집중을 초래하였고, 이로 인해 주택자원의 절대적 부족과 공급 능력의 한계라는 심각한 주택문제를 야기 시켰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주택부족 문제를 하루 속히 해결하고 부족한 토지자원의 한계를 뛰어 넘을 수 있는 새로운 도시형 주택유형인 고층아파트를 집중적으로 건설함으로써 심각한 주택부족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공용공간의 소홀에 의한 이웃관계의 단절 등의 또 다른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계단실형 고층아파트단지와 편복도형 고층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각 주호로의 진입형식에 따라 이웃관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고 그 범위와 밀도는 어느 정도인가를 비교분석을 통해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정회원, 조선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박사과정

**정회원, 조선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석사과정

***정회원, 조선대학교교육대학원 기술교육과, 석사과정

****정회원,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공학박사

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계단실형 고층아파트와 편복도형 고층아파트 거주민의 이웃관계를 실제 사례를 통해 규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연구방법은 먼저 본 연구목적의 기본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 계단실형아파트단지과 편복도형아파트를 각각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시기는 2003년 11월부터 2004년 1월까지 3개월 동안 조사대상 아파트에 거주하는 거주민을 대상으로 미리 준비된 설문지를 배포하여 작성토록 하였고 설문내용이 명확하지 않는 사항은 직접 1:1 면접방식을 통해 실시하였다. 설문부수는 총 150부를 배포하였고 이중 회수된 100부를 최종 자료로 선정하였다. 그 후 데이터화 된 자료는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교차분석 등을 이용해 이웃관계 형성의 일반적인 경향과 커뮤니티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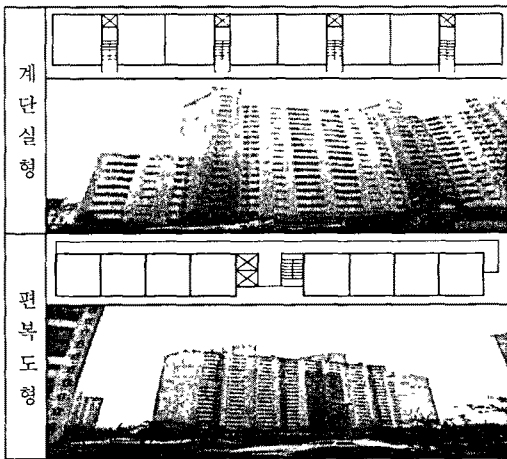


그림 1. 조사대상아파트의 평면형식 및 전경

II. 이웃관계의 정도와 친밀도

1. 거주자의 일반적 특성 및 거주행태

조사대상아파트 거주자의 일반적 속성을

살펴보면, 먼저 연령별로는 계단실형에서 30대가 3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40대, 50대 순으로 나타났으며, 편복도형에서도 30대가 44%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40대, 20대 순으로 조사대상아파트 모두에서 3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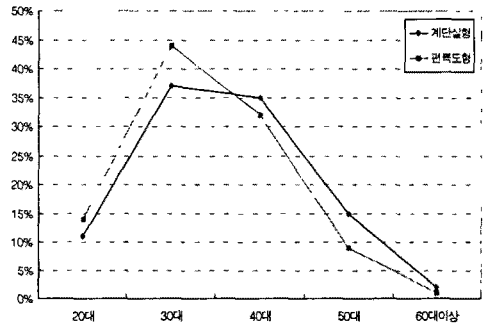


그림 2. 조사대상자의 연령별 분포

직업별로는 계단실형에서는 전문직업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정기적인 출퇴근을 하는 주부들이 조사가구의 절반에 가까운 45%로 나타났고 다음은 전업주부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편복도형에서도 정기적인 출퇴근을 하는 주부가 2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전업주부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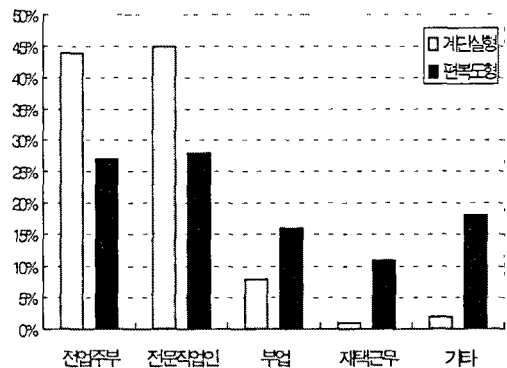


그림 3. 조사대상자의 직업별 분포

가족구성 유형별로는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족의 빈도가 계단실형이나 편복도형 모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경우나 부부+자녀+부모로 구성된 이른바 전통적 가족 형태를 이루는 경우는 전체의 23% 이내인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조사대상 아파트의 가족구성 형태가 핵가족을 지향하는 전형적인 도심형임을 알 수 있다.(그림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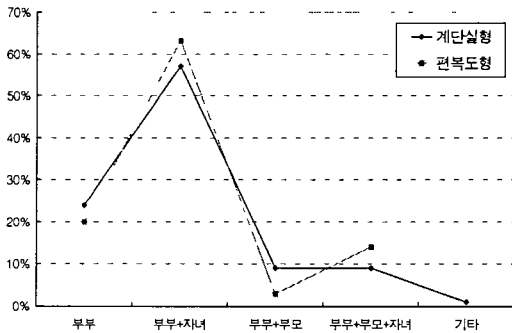


그림 4. 조사대상자 가족구성의 유형 분포

조사대상자가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의 소유형태는 계단실형에서 자가 소유인 경우가 7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전세, 영구임대 순으로 나타났으며 편복도형에서도 자가 소유인 경우가 전체의 5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전세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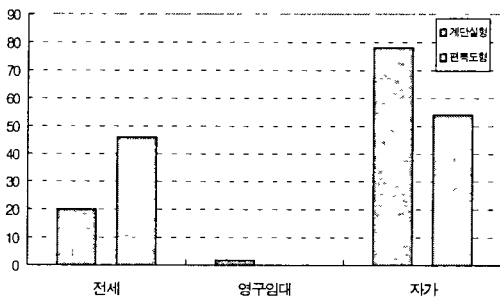


그림 5. 조사대상자의 아파트 소유형태

현재 아파트에서의 거주기간은 계단실형에서 5년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50%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5~9년, 10~14년 순으로 나타났으며 편복도형에서도 5년 미만의 경우가 5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5~9년, 10~14년 순으로 나타나 10년 이상 장기간 거주하는 단독 주택에 비해 조사대상 아파트에서의 거주기간이 비교적 짧게 나타났다. 이웃관계의 형성은 어느 정도의 시간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같이 거주기간이 짧을 경우, 이웃관계의 단절이 더욱 심화되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그림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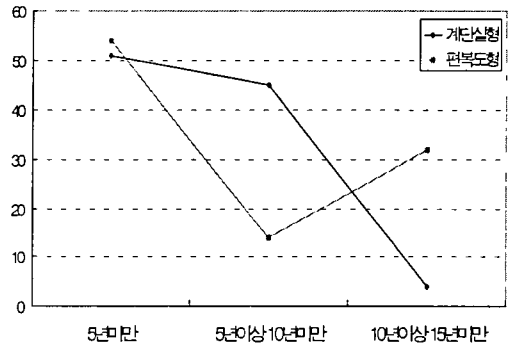


그림 6. 조사대상 가족의 현 아파트의 거주 년 수

2. 이웃관계의 정도와 친밀도

2-1. 아파트 전체에서의 이웃관계 정도

이웃 간에 어느 정도의 친밀도를 갖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친밀정도를 “인사정도 하고 지낸다, 가족이 함께 왕래한다, 음식 등을 나누어 먹고 김장일을 돕는다” 등의 3가지 항목으로 구분하고 그에 해당되는 가구수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인사정도는 하고 지낸다”는 경우에 있어서는 1~3가구 정도가 계단실형, 편복도형 모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중 계단실형이 편복도형 보다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가족이 함께 왕래를 한다”의 경우는 계단실형은 “없다”의 경우가 가장 많고, 편복도의 경우는 1~3가구정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없다”의 경우는 계단실형이 편복도형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음식 등을 나누어 먹고 김장일을 도울 정도의 친밀함을 갖고 있다”의 경우도 계단실형에서는 “없다”가 가장 많고 편복도형에서는 1~3가구가 있다는 정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역시 “없다”의 경우는 계단실형이 편복도형보다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서 이웃관계의 정도는 계단실형 보다 편복도형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표1 참조)

표 1. 아파트 전체의 이웃관계 정도

| 구 분 | 인사 정도는 하고 지낸다 | | 가족이 함께 왕래 한다 | | 음식 등을 나누어 먹거나 김장일을 돕는다 | |
|--------|---------------|-------|--------------|-------|------------------------|-------|
| | 계단실형 | 편복도형 | 계단실형 | 편복도형 | 계단실형 | 편복도형 |
| 없다 | 80% | 40% | 520% | 250% | 660% | 350% |
| 1~3가구 | 770% | 49% | 390% | 460% | 240% | 410% |
| 4~5 | 80% | 24% | 50% | 180% | 80% | 180% |
| 6~7 | 40% | 11% | 40% | 60% | 20% | 30% |
| 7~8 | 20% | 40% | - | 30% | - | 10% |
| 8~9 | -- | 40% | - | 20% | - | 10% |
| 10가구이상 | 10% | 40% | - | | - | 10% |
| 합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복도나 현관 등에서 이웃과 마주쳤을 때의 행위에 대해서는 계단실형에서 눈인사 정도를 하고 그냥 지나친다가 가장 많은 반면, 편복도형에서는 간단하게 의례적인 인사 정도를 나눈다가 가장 많이 나타나 이 역시 편복도형이 이웃과의 친밀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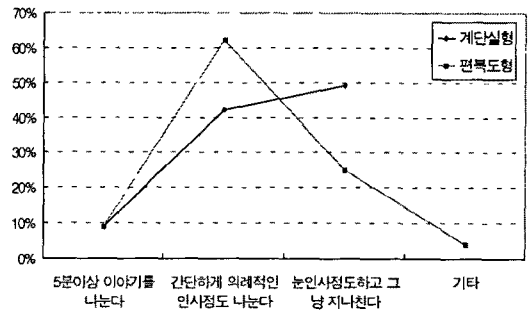


그림 7. 이웃과 만남시의 친밀함 정도

2-2. 동일한 라인에서 이웃관계의 정도

각 주호로의 출입구인 복도 및 엘리베이터, 계단 등을 같이 이용하는 라인에 대한 세대와의 친밀도를 4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친밀 정도의 세대수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물건이나 돈을 빌릴 수 있는 정도”의 경우는 계단실형이나 편복도형 모두에서 “없다”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나 그 빈도는 계단실형이 편복도형보다 높은 반면 1~3가구 정도는 편복도형이 계단실형 보다 많이 나타났다.

“조금 친하게 지낸다”의 경우에는 계단실형이나 편복도형 모두 1~3가구정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없다”의 경우는 계단실형이 편복도형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고 4~6가구도 편복도형이 계단실형에 비해 훨씬 많이 나타났다.

“만나면 대화정도를 나눈다”에서는 계단실형이나 편복도형 모두 1~3가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없다”의 경우는 계단실형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4~6가구에서는 편복도형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주치면 인사정도를 나눈다”에서는 계단실형이나 편복도형 모두 1~3가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4~6가구에서는 편복도형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서 편복도형이 계단실형보다 교류의 범위가 넓고 침

밀도 역시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2 참조)

표 2. 출입구를 같이 사용하는 이웃간의 친밀도

| 구 분 | 물건이나 돈을 빌리는 정도다 | | 조금 친하게 지낸다 | | 만나면 대화할 나누는 정도다 | | 마주치면 인사할 나누는 정도이다 | |
|---------|-----------------|------|------------|------|-----------------|------|-------------------|------|
| | 계단실형 | 편복도형 | 계단실형 | 편복도형 | 계단실형 | 편복도형 | 계단실형 | 편복도형 |
| 무응답 | 2% | 1% | 3% | 2% | 3% | 2% | 5% | 3% |
| 없다 | 72% | 51% | 31% | 3% | 30% | 1% | 2% | - |
| 1~3가구 | 24% | 40% | 61% | 57% | 50% | 48% | 76% | 33% |
| 4~6가구 | 1% | 8% | 3% | 33% | 13% | 40% | 13% | 39% |
| 7~9가구 | - | - | 1% | 4% | 2% | 6% | 3% | 18% |
| 10~14가구 | - | - | 1% | - | - | 2% | - | 4% |
| 15세대이상 | 1% | - | - | 1 | 2% | 1% | 1% | 3% |
| 합계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2-3. 이웃관계의 형성 장소

이웃과의 대화 장소에 대해서는 계단실형과 편복도형 모두에서 용무가 있는 집 현관 앞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호내 집 안에서 대화를 하는 경우는 계단실형보다 편복도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엘리베이터홀이나 복도에서 대화 나누는 경우는 편복도형보다 계단실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 역시 계단실형 보다는 편복도형이 이웃간의 교류와 친밀도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이웃관계를 형성 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를 갖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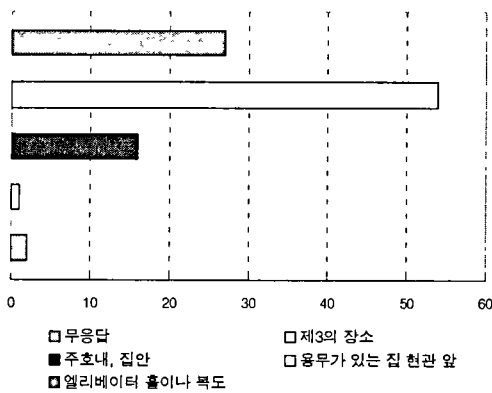


그림 8. 조사대상자의 이웃과의 대화 장소

3. 이웃에 대한 인식적 태도

이웃교제는 지역 커뮤니티 형성의 근간이 된다. 따라서 조사대상자들에게 이웃과의 교체 동기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편복도형에서는 이웃집이여서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계단실형에서는 인접한 집이여서와 반상회를 통해서 교체하기 때문이라는 경우가 비슷한 빈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그림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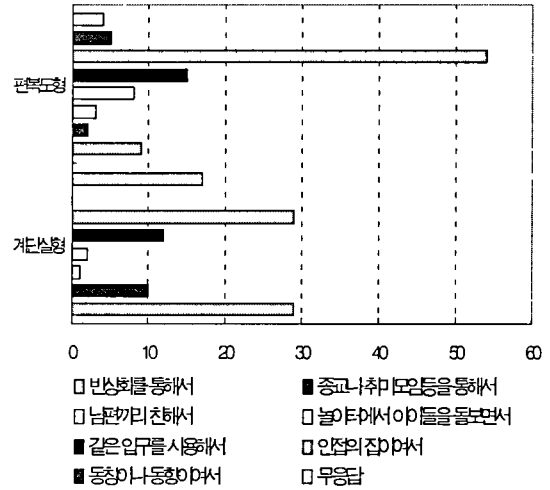


그림 9. 조사대상자의 이웃교제 동기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에 대한 애착의 정도가 과연 이웃교제의 정도에 따라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또 이들 간에 어떤 상관성이 있는 가를 알아보기 위해 두 변수를 사용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계단실형과 편복도형 모두에서 이웃교제의 정도가 많을수록 거주 아파트 단지에 대한 애착의 정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두 변수 사이에 존재하는 상관성은 $p < .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3 참조)

표 3. 이웃교제의 정도와 단지에 대한 애착심

| 구분 | 아파트 단지에 대한 애착심(F22) | | | | | | | | |
|------|---------------------|------|--------|------|--------|------|---------|------|-----|
| | 매우 느긋다 | | 조금 느긋다 | | 그저 그렇다 | | 느끼지 못한다 | | |
| | 계단실형 | 편복도형 | 계단실형 | 편복도형 | 계단실형 | 편복도형 | 계단실형 | 편복도형 | |
| 300 | 빈도 | 0 | 0 | 2 | 0 | 3 | 0 | 1 | 2 |
| | 기대빈도 | 4 | 2 | 13 | 5 | 34 | 11 | 10 | 1 |
| | 전체 % | 0 | 0 | 2.0 | 0 | 3.0 | 0 | 1.0 | 2.0 |
| 400 | 빈도 | 1 | 0 | 7 | 2 | 27 | 17 | 10 | 2 |
| | 기대빈도 | 27 | 19 | 95 | 57 | 252 | 120 | 77 | 15 |
| | 전체 % | 1.0 | 0 | 7.0 | 2.0 | 27.0 | 17.0 | 10.0 | 2.0 |
| 500 | 빈도 | 0 | 0 | 6 | 4 | 6 | 1 | 2 | 1 |
| | 기대빈도 | 8 | 5 | 29 | 16 | 73 | 34 | 24 | 4 |
| | 전체 % | 0 | 0 | 6.0 | 4.0 | 6.0 | 1.0 | 2.0 | 1.0 |
| 600 | 빈도 | 0 | 1 | 2 | 5 | 16 | 14 | 2 | 0 |
| | 기대빈도 | 12 | 18 | 42 | 54 | 112 | 114 | 34 | 14 |
| | 전체 % | 0 | 1.0 | 2.0 | 5.0 | 16.0 | 14.0 | 2.0 | 0 |
| 700 | 빈도 | 0 | 0 | 2 | 6 | 1 | 14 | 0 | 0 |
| | 기대빈도 | 2 | 18 | 6 | 54 | 17 | 114 | 5 | 14 |
| | 전체 % | 0 | 0 | 2.0 | 6.0 | 1.0 | 14.0 | 0 | 0 |
| 800 | 빈도 | 1 | 0 | 0 | 3 | 2 | 6 | 0 | 1 |
| | 기대빈도 | 2 | 9 | 6 | 27 | 17 | 57 | 5 | 7 |
| | 전체 % | 1.0 | 0 | 0 | 3.0 | 2.0 | 6.0 | 0 | 1.0 |
| 900 | 빈도 | 4 | 1 | 0 | 0 | 0 | 3 | 0 | 1 |
| | 기대빈도 | 2 | 5 | 8 | 14 | 22 | 29 | 7 | 4 |
| | 전체 % | 4.0 | 1.0 | 0 | 0 | 0 | 3.0 | 0 | 1.0 |
| 1000 | 빈도 | 0 | 2 | 1 | 0 | 0 | 1 | 0 | 0 |
| | 기대빈도 | 1 | 3 | 2 | 8 | 6 | 17 | 2 | 2 |
| | 전체 % | 0 | 2.0 | 1.0 | 0 | 0 | 1.0 | 0 | 0 |
| 1100 | 빈도 | 0 | 1 | 0 | 1 | 0 | 0 | 2 | 0 |
| | 기대빈도 | 1 | 2 | 4 | 5 | 11 | 11 | 3 | 1 |
| | 전체 % | 0 | 1.0 | 0 | 1.0 | 0 | 0 | 2.0 | 0 |
| 1200 | 빈도 | 0 | 1 | 1 | 1 | 0 | 1 | 0 | 0 |
| | 기대빈도 | 1 | 3 | 2 | 8 | 6 | 17 | 2 | 2 |
| | 전체 % | 0 | 1.0 | 1.0 | 1.0 | 0 | 1.0 | 0 | 0 |
| 1300 | 빈도 | 0 | 5 | 0 | 5 | 1 | 0 | 0 | 0 |
| | 기대빈도 | 1 | 8 | 2 | 5 | 6 | 11 | 2 | 1 |
| | 전체 % | 0 | 1.0 | 0 | 1.0 | 0 | 0 | 0 | 0 |

Pearson 카이제곱 value= 102.515 df=30 접근 유의확률(양측검정) 000

III. 결 론

본 연구는 계단실형 고층아파트단지와 편복도형 고층아파트단지에서 과연 거주자들에게 어떻게 이웃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를 규명하고자 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아파트 단지의 거주민은 대부분 거주기간이 비교적 짧으며, 부부와 소수 자녀 중심의 핵가족의 가족유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이웃관계는 계단실형 아파트에서 대부분 같은 출입구나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가구를 중심으로 수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반면 편복도형에서는 동일복도에서 수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친밀도와 교류정도

는 계단실형보다 편복도형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에 대한 애착의 정도는 이웃관계가 많을수록 높은 상관성을 보이고 있는데 진입형식별로는 편복도형이 계단실형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주5일제 근무가 일반화됨에 따라 주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여가활동 시간이 증대되고 또 이웃 간의 접촉기회가 많아지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계단실형 및 편복도형 고층아파트를 계획·설계할 경우 수직적 교류와 수평적 교류가 함께 일어날 수 있으며 또한 복도가 통로가 아닌 이웃간의 교류장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유공간의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참고문헌

1. 대한주택공사, 공동체시설 활성화를 위한 주거 단지배치계획, 대한주택공사 연구보고서, 1994.
2. 박윤성, 주거론, 문운당, 1986.
3. 조용준의 共譯, 집주체의 설계, 광문각, 2002.
4. 한국건설기술원, 공동주택의 초고층화를 위한 계획 및 설계기법 개발, 1991
5. 장명수, 도시계획학, 보성문화사, 1993.
6. 강부성 외 5인, 도시집합주택의 계획11+44, 공동주택연구회, 1997.
7. 유길준, 공동주택의 외부공간 구성과 근린 Community 형성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12
8. Oscar Newman, 『Defensible space』, New York, Collier
9. Manuel Castells, Urban Question, MIT Press, 1977.
10. Louis Wirth, Urbanism as a Way of Lif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44, July 1938.
11. Robert E. Pa가 외 3인, The Ci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25.